

방과 후 래퍼·우리 반 춤꾼 모여라

‘방과 후 힙합’ 진정성 있는 랩 기대
‘댄싱하이’ 10대 댄스 오디션 눈길
‘언터나인틴’ 아이돌 발굴 프로도

“10대를 잡아라!”
10대들이 방송 콘텐츠의 ‘핵’으로 떠올랐다. 과거 ‘어리다’고, ‘세상에 대해 뭘 아느냐’며 무시당했던 이들이 어느덧 주류가 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결정권이나 구매력이 없어 그저 미래의 잠재 고객으로만 분류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프로그램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에서 그치지 않고, 미리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시기에 3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한다.
출발은 SBS에서부터 시작한다. 16일부터 방송되는 ‘방과 후 힙합’은 MC와 래퍼들이 전국 곳곳의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10대들의 이야기를 랩으로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기존의 힙합 프로그램과 달리 10대들의 고



올해 초 엠넷 ‘고등래퍼’의 인기로 10대들이 방송 콘텐츠의 중심에 섰다. 이 기세를 이어 10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디션프로그램 SBS ‘방과 후 힙합’(왼쪽사진)과 KBS 2TV ‘댄싱하이’가 공개된다.

민을 진솔하게 들여보고 그 이야기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편한 10대들과 힙합의 만남’이 포맷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높다.
이들의 바통은 KBS 2TV ‘댄싱하이’



가 이어받는다. 9월7일부터 방송하는 ‘댄싱하이’는 국내 방송 처음으로 10대 춤꾼의 우열을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정형돈이 진행을 맡고 저스트점프, 안무가 리아킴, 비스트의 이기광, 인피니트 출신 이호원, 워너 이송훈 등 가요계에서 ‘춤꾼’으로 통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댄

스 코치로 출연한다.
“10대들의, 10대들에 의한, 10대들을 위한”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만큼 전국의 10대 춤꾼을 모으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최근 3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11월 초 방송예정으로 준비가 한창인 MBC 오디션프로그램 ‘언터나인틴’ 역시 랩, 보컬, 퍼포먼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10대를 선발한다. 최종예로 뽑힌 이들을 차세대 아이돌로 선보이겠다는 게 제작진의 의도다.
세 프로그램에 앞서 10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시즌1.2 모두 재미를 본 케이 블채널 넷넷 ‘고등래퍼’도 내년 초 시즌3을 방송할 예정이다.
‘고등래퍼’ 전지현 PD는 “10대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잘 표현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신들의 이야기 등을 구체화해 전달하면 그 시대를 거쳐 간 기성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10대들을 주요 타깃층으로 내세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재편된 방송 시장에서 연령대가 낮아진 시청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삶과 스웨덴 출신의 그룹 아바의 영곡이 스크린에서 공개된다. 사진은 영화 ‘휘트니’(왼쪽사진)와 ‘맘마미아!2’의 한 장면.



사진제공 | 편씨네마·UPI코리아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음악영화가 온다

전설적인 뮤지션과 그의 음악을 토대로 완성된 영화가 잇달아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잠시나마 폭염을 잊게 할 만한 음악영화들이 있다.
6년 전 세상을 뜬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휘트니’가 23일 개봉한다. 앞서 8일에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그룹 아바의 명곡으로 채워진 뮤지컬영화 ‘맘마미아!2’가 공개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뮤지션, 이들의 명곡이 있어 가능한 작품들이다.
‘휘트니’는 1985년 데뷔해 2012년 생을 마감한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삶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래미상을 6번 차지하고 누적 음반 판매량이 1억7000만장에 이르는 세계적인 스타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누구보다 진솔했던 뮤지션의 모습을 담는다.
무엇보다 영화에는 휘트니 휴스턴이 남긴 메가히트곡이 빠짐없이 담겼다. ‘아이 워너 댄스 위드 썬바디’, ‘아이 해브 낫싱’을 비롯해 국내 팬에게도 친숙한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까지 총 27곡이 공개된다. 영화 ‘보디가드’를 함께한 배우 케빈 코스트너, 휘트니 휴스턴과 한 때 부부였

던 바비 브라운, 음악적 동지 마빈 게이 등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휘트니’가 오직 뮤지션과 그 음악에 충실한 음악 다큐멘터리라면 ‘맘마미아!2’는 아바의 음악으로 완성한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다. 2008년 나온 1편은 국내에서 457만 관객 동원에 성공, 뮤지컬영화 열기를 시작한 작품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이번 2편도 1편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역시 아바의 솔한 명곡을 토대로 극이 구성됐고 그리스의 섬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현재와 1970년대 과거의 이야기를 교차해

휘트니 휴스턴 삶 다룬 ‘휘트니’
‘맘마미아!2’ 아바 명곡 재탄생

보여준다. 10년 만에 나오는 후속편이자, 아바의 음악으로 탄생한 영화라는 점에 맞춰 제작진은 음악에 더욱 신경을 쏟았다. 1편에 삽입된 ‘댄싱 퀸’ ‘맘마 미아’ ‘아이 해브 어 드림’이 다시 삽입됐고 아바의 명곡 20여곡도 흐른다.
수입사 UPI코리아는 “1편이 아바 음악의 향연이었다면 2편은 아바의 곡을 넘어, 아바의 멤버이자 작곡을 맡은 베니 앤더슨의 유려한 편곡으로 재탄생한 곡까지 만날 수 있다”며 “대중에게 덜 알려진 아바의 숨은 노래도 수록됐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너도 인간이니?’ 너도 실패했니?

초라한 성적 중영…사전제작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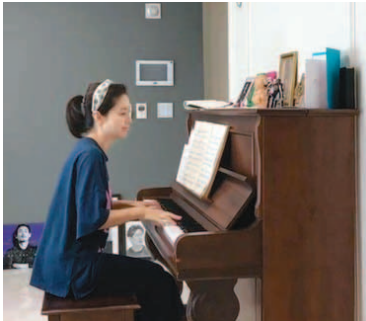
KBS 2TV 월화드라마 ‘너도 인간이니?’가 초라한 성적으로 퇴장한다. 기획에만 2년을 투자하는 등 완성도를 위해 공을 들였지만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일 종영하는 ‘너도 인간이니?’는 편성

확정 후 방송가에서는 2018년 기대작 가운데 한 편으로 꼽혔다. 서강준의 지상파 드라마의 첫 주인공 도전, 100억대 제작비, 100% 사전 제작 시스템 등 여러 요소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6월4일 첫 방송 후 두달 내내 화제를 모으지 못했다. 시청률은 서강준이 제작발표회에서 목표로 내걸었던 15.5%에 턱없이 부족했다. 6월12일 방송한 8회 시청률 9.9%(닐슨코리아)가 가장 높고, 평균 5%대에 머물렀다.
사전제작 드라마의 한계도 드러났다.

‘너도 인간이니?’는 지난해 6월 촬영을 시작하고 그해 11월 완료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로봇을 통해 인간의 휴머니즘이 제대로 구현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100억대의 제작비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작진은 세 곳의 CG업체와 영화 ‘부산행’의 특수 분장 팀까지 동원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극중 인간 서강준이 로봇으로 변화하는 과정, 건물 화재와 차량 폭파 장면과 화면

전환 등 다양한 기법으로 시각적 효과를 켰다. 하지만 제작비에 걸맞은 스케일과 웅장함으로 시청자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영상미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너도 인간이니?’는 서강준에게도 아쉬운 작품이 됐다. 전작인 tvN ‘안투라지’(2016)가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터라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지상파 첫 주인공과 1인2역을 맡아 부활을 기대했지만 성과는 크지 못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송윤아 ‘나, 피아노 치는 여자야’

연기자 송윤아가 피아노 연주에 푹 빠져 있다. “날이 더워서”라며 공개한 영상에서 그는 악보를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꼭 내밀었다가 또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등 피아노 연주에 열중하고 있다. 분위기는 우아하지만 편안한 옷차림과 머리피를 한 모습에 언밸런스해 웃음을 준다. 밖에 세워져 있는 절경구의 그림은 송윤아를 지켜보는 것 같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포스트 #송윤아 #피아노치는여자 #매력은어디까지

내마음에 작품하나

진기주-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점점 잃어가는 동심 신비한 상상력 자극

누구에게나 어린시절의 파스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있다. 큰 걱정 없이 마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며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의 기억이다. 연기자 진기주는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을 보고 소녀시절 “품에 꼭 껴안고 있던” 공룡책이 생각났다. 잊고 있던 그때의 포근함을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됐다.
2016년 개봉한 ‘신비한 동물사전’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마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인 뉴트 스캐먼더(에디 레드메인)가 신비한 동물을 찾아 미국 뉴욕으로 떠난 이야기를 그린다. 뉴트는 어른의 모습이지만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뉴트의 가방 속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기상천외한 동물의 모습과 화려한 시각효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진기주는 지금도 동심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다.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주위의 관심이 어색할 때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며 안정을 찾곤 한다.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중 하나인 스티치를 좋아하는 그는 인형뽑기 상점이 있으면 들어가 뽀곤 한다.
백솔미 기자